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	 법무부
	<b>보도</b>	<b>배포후 즉시</b>	배포	2019.11.18.(월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<b>담 당 자</b>	박 석 훈 사무관 (02-2100-2682)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 한 석(02-2110-3167)		이 규 철 서기관 (02-2110-3256)
	예탁결제원 증권등록업무부장 박 선 혜 (02-3774-3290)		최 흥 규 팀 장 (02-3774-3145)

## 제 목 :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

### I 전자증권제도 개요

-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·유통·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
  -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<sup>(1)</sup>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<sup>(2)</sup>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

※ (1)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고(예 : 신규상장, 주식분할 등 증권 사무 일정이 단축),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

(2)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음성거래를 차단하며, 위조·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

-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법률 공포('16.3월)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'19.9.16일 전면 도입되었음
  - 제도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으며, 소액주주의 권리보호,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

## II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

□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

① **[주주편의 제고]** 소액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\*

\* 소액주식(1,000만원 이하)에 한해 매매계약서 등 권리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, 확약서 등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조치

② **[비상장사 참여 촉진]**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·시행\*

\*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면제('19.9월~), 증권대행수수료 인하('20.1월~)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(상세 붙임)

③ **[현장대응반 운영]**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하여 제도화·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\*에 반영

\* 예) 비상장회사의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을 위해 비상장회사 전자등록 지원 센터 운영, 증권의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표준정관(案) 마련·배포

## III 지난 2개월간 성과

①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힘입어 짧은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

○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,900만주, 비상장주식은 약 7,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완료

<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실물주식의 일반계좌 전자등록 현황 >

	상장주식		전자증권 전환 비상장주식	
	반납 수량(주)	미반납 비율	반납 수량(주)	미반납 비율
9.16~30일	3,400만	0.65%	2,800만	11.69%
10월	5,100만	0.61%	4,900만	10.33%
11.1~14일	1,400만	0.59%	7만	10.37%
소계	9,900만		7,700만	

## ② 적극적인 홍보·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

※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

- 지난 2개월간 **70개 비상장회사**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 (97→167개)하였으며, 제도참여율도 증가(4.3%→6.9%)

### <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현황 >

일 자	회사 수	종목 수	비상장회사 참여비율*
'19.9.16(제도시행일)	97	180	4.3%
'19.11.14	167(+70)	288(+108)	6.9%(+2.6%P)

\* 전체 비상장회사(전자증권+예탁지정) 2,424개사 기준('19.11.14)

## IV 향후 추진계획

- 주주·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

-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\*하고,

\* 예) 주권제출 및 전자등록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

-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\*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\*\* 추진

\* 예)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연장, 전자투표·위임장 수수료(예탁원) 한시 면제 등

\*\* 예)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등

- 또한,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(예탁원)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## 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 및 절차 부담 경감

① 전자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 감경 추진(한시)

※ 예) ❶ 증권대행수수료 감면('20.1월~)

❷ 등록발행 수수료(1社당 연평균 30만원 수준) 한시적 면제('19.9월~)

② 전자등록 심사 관련 법령상 기간보다 단축하여 운영(계속)

※ 예) 심사 소요기간 : (법령상 기간) 1개월 이내 → (개선) 3영업일 내외

③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등 사무를 지원

※ 예) ❶ 비상장회사 전자등록 지원센터 운영, 표준정관(案) 마련·배포 등(계속)

❷ 주주총회 전자투표 수수료 인하(現 50만원, 최대 50만원 감면)('20.1월~)

④ 예탁원을 통해 “찾아가는 서비스” 실시('20.1월~)

※ 비상장회사 방문 또는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장점,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전자등록을 망설이는 이유, 애로사항 등을 청취

## ②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강화

① 증권의 발행·사무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

※ 예)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상으로 편리하게 증권발행, 사무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구축(예탁원 준비중)

② 자금조달 기회 확대 : 성장사다리 펀드 등 투자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③ 회계감리 부담 경감 :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 감안하여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시 감경사유로 고려